

서적 | 고문서와 사요일기

N-17-1: 고문서 | 아시카가 다카우지 등

1336년 6월 30일,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남동생인 아시카가 다다요시는 교토에서 닛타 요시사다, 나와 나가토시 등 적대 세력을 격퇴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1336년 7월 12일, 다카우지가 승리를 결의하며 하리마국 이카루가 장원(지금의 효고현 이보군 다이시정) 고온지 절에 보낸 명령서입니다. 천하의 평온함을 기원하도록 명하는 내용으로, 다카우지의 화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온지 절과 관련된 서장 등과 함께 하나의 두루마리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훗날 무로마치 무사 정권을 수립합니다.

N-17-2: 고문서 | 아시카가 요시마사 등

1458년 9월 22일, 무로마치 무사 정권이 호류지 절의 소유지인 하리마국 이카루가 장원(지금의 효고현 이보군 다이시정)에 발부한 명령서입니다. 세금과 임시 업무 할당, 강제 노동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무로마치 무사 정권의 8대 최고 권력자인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화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로마치 무사 정권 10대 최고 권력자인 아시카가 요시타네의 1518년 8월 6일부 문서 등과 함께 하나의 두루마리에 담겨 있습니다.

N-23: 사요일기

난보쿠초시대에 진행된 호류지 절의 연중행사를 한 달씩 12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달의 행사를 날짜순으로 기재하였으며, 법회의 순서와 유래를 중심으로 경비를 부담한 호류지 절의 영지에 대해서도 기록하였습니다. 7권에는 1449년 9월 24일에 필사했음이 적혀 있습니다. 4월의 책만 1628년에 필사된 것입니다.

염직 |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의 조각과 다양한 기법의 염직품

이번 염직 전시에서는 쇼무 천황의 유품으로 전해져 오는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의 조각>을 중심으로 매듭과 능직, 평직비단, 오늘날의 펠트를 뜻하는 전(氈)과 같이 다양한 기법의 염직품을 전시합니다. 직조와 매듭 기술, 염색한 색깔의 차이 등을 통해 고대 염직의 풍부한 세계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N-49: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의 조각

[중요문화재] 나라시대 8세기

다채로운 색실을 짠 색에서 옅은 색으로, 단계적으로 흐리게 배열하여 매듭으로 격자무늬를 표현한 허리띠입니다. 쇼무 천황의 허리띠로 전해져 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양한 색의 유리구슬과 진주를

실에 끼워 직조를 한 점입니다. 이것은 쇼소인 보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높은 신분의 인물이 착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N-50-1: 지그재그무늬 매듭 번두

[중요문화재]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깃발인 번의 상단에 해당하는 번두 부분입니다.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색실을 사용하여 지그재그무늬를 표현했습니다. 산 모양무늬는 쇼토쿠태자의 초상화로 유명한 황실 소장품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 초상〉 속 태자의 허리띠 부분에서도 발견됩니다.

N-319-14: 평직비단, 능직비단 변죽 조각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번의 중앙 부분을 뜻하는 번신의 하단 가장자리와 네 줄의 변죽(번의 하단 부분)의 조각입니다. 그중 한 줄에만 연속된 구슬무늬 안에 새가 마주 본 모습을 표현한 적자색의 능직비단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는 평직비단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기본색인 오색(감색, 적색, 황색, 녹색, 자색)을 의식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남겨진 조각을 통해 매우 화려했던 원래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N-319-34: 평직비단 번 조각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번의 상단 부분을 뜻하는 번두 및 번신의 하단과 변죽이 달려 있었던 부분이 남아있는 평직비단 번 조각입니다. 특히 황색의 번은 ‘명과번’이라고 불리며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공양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I-336-4: 황색 바탕 작은 원 꽃무늬를 금과 은으로 찍어낸 라(羅)

나라시대 8세기

날실을 복잡하게 엮어 생긴 빈틈에 씨실을 통과시켜 무늬를 표현하는 라(羅) 기법으로 비스듬한 격자 무늬를 표현하고 금분과 은분을 사용하여 작은 원 형태의 여섯 잎 꽃무늬를 찍어 표현했습니다. 조각만이 남아있지만 귀여운 인상을 주는 작품입니다.

I-336-93: 줄무늬 바탕 용무늬 자수

아스카시대 7세기

평직비단에 색실을 사용해 가로로 구분하고 이음수로 용과 바탕을 이루는 무늬를 치밀하게 수놓았습니

다. 비교적 작은 몸체의 용이 네 발로 서있는 모습에서 고훈시대의 금속 공예 작품의 무늬와의 유사성을 보이며, 나라현에 있는 주구지 절에서 소장 중인 국보 <천수국 자수 휘장>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I-336-108: 백색 바탕 꽃무늬 전(氈)

나라시대 8세기

전(氈)이란 양모를 압축시켜 만든 깔개를 지칭하며 오늘날의 펠트와 같습니다. 이 작품은 흰색 바탕의 전에 남색과 옅은 남색, 빨간색과 옅은 빨간색으로 염색한 양모를 끼워 넣고 압착해 꽃무늬를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화전(花氈)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쇼고인에서는 여러 종류의 작품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 호류지에는 이 작품만이 전해져 와 매우 귀중한 작품입니다.

N-319-52-2: 연청색 바탕 평직비단 번죽 조각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연청색 평견으로 된 번죽입니다. 평견은 날실과 씨실이 하나씩 교차해 직조하는 가장 단순한 직물로, 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직물입니다. 쪽으로 염색한 것으로, 쪽염색은 염색 방법과 염색 횟수에 따라 다양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N-319-115: 황색 바탕 변형 바둑판무늬 능직비단 번죽 조각

N-319-117-1: 적색 바탕 바둑판무늬 능직비단 번죽 조각

모두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호류지에 전해져 오는 번에는 능직비단이라는 비단을 사용한 예가 많이 발견됩니다. 능직비단이란 교차하는 날실과 씨실이 다른 방향의 실을 일정한 규칙으로 건너뛰어 무늬를 표현하는 직물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능직 중에서도 제작 시기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평직 바탕에 능직으로 무늬를 짜는 비법으로 바둑판무늬를 나타냈습니다. 실을 띄우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해 울퉁불퉁한 표면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하는 재미있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N-319-116: 적색 바탕 한 쌍의 봉황과 넝쿨, 연속된 원무늬 능직비단 번죽 조각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연속된 원무늬 안에는 마주 보는 한쌍이 봉황이 봉황이 표현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넝쿨로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평직으로 바닥을 직조하고 능직으로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은 7세기 직물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마름모꼴과 지그재그와 같이 기하학적 무늬에서 구체적인 무늬를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